

녹취록, 증거 인정 기준은



이은숙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스마트폰 등 휴대용 녹음 기기의 발달로 일상생활에서 녹음이 쉬워지면서 재판에 있어서도 형사·민사를 가리지 않고 녹취록이 증거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녹취록의 내용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언뜻 생각해보면 타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이를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녹음 및 녹취록의 사용은 어디까지 불법이고, 어디까지 합법일까?

녹음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녹음하고 있는 대화에 '나'가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의 청취와 녹음과 관련한 처벌 대상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참여하고 있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설령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밝히지 않고 몰래 녹음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반면,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도청'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택시 운전기사가 인터넷 방송을 목적으로 승객들에게 질문하거나 답변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이어 나가면서 이를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실시간 중개한 사건에서 "택시 운전기사가 승객들에 대하여 초상권 등의 부당한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지득하여 공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녹음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녹음 사실을 공개하였는지 등을 불문하고 녹음자가 대화자 중 한 명이었던지 만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반면, 전화 통화 시 상대방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상대가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상대가 실수로 통화를 종료하지 않고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자 이를 들으면서 핸드폰으로 녹음한 사안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

는 취지이다. 그런데 제3자가 통화연결 상태에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대화를 청취, 녹음하는 행위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녹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녹음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해 민·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까? 앞의 사례와 같이 내가 참여한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취득한 녹취록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재판에 자주 제출되는 증거 중 하나이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4항에는 명시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취득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당사자가 참가하지 않고 타인의 대화 등을 녹음해 취득한 증거는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단, 민사사건의 경우 증거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녹음 내용이 인격권 등을 침해하게 훼손하는 등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한 경우가 아닌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바른



국민연금, 아동·청소년 자립 위해 13.7억 기부
국민연금공단은 5월 31일 형편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하여 우리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와 함께 사랑나눔 실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약 13억7400만원으로 공단 임직원과 국민연금수급증가카드 발급 카드사의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됐다. (왼쪽부터)우광혁 NH농협카드 부사장, 김영호 신한카드 부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이기희 우리카드 전무. /국민연금



신한은행, 소외계층 청소년에 문화나눔 실천
신한은행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대학로에 위치한 뮤지컬 빨래 공연장에서 청소년 200여명을 초청해 문화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소외계층 청소년을 초청해 뮤지컬,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 공연 관람을 제공하는 '꿈 같은 하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

NH농협생명

CPC총괄부사장에 권용범



NH농협생명은 CPC총괄부사장으로 권용범 전 농협생명 경영기획본부장(사진)을 선임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CPC총괄부사는 전사 중장기 및 연간 CPC 통합 전략수립을 담당한다. 권 선임 부사장은 대전 출신으로 지난 1988년 농협 중앙회에 입사했다. 지난 2008년 NH보험분사 손해보험부 팀장, 2010년 NH보험분사 생명보험부 팀장, 2012년 농협생명 채널전략부장, 2013년 경기지역총국장, 2015년 마케팅전략본부장, 2016년부터 경영기획본부장을 역임한 보험 전문가다.

권 선임 부사장은 경영기획본부장 재임시절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감사·제재·혁신 프로세스 TF'에 생명보험사 대표로 참여하여 IFRS17 선제적 대응을 위해 후순위채 발행 등 성공적 자본확충을 이끌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유진플러스

'핑크퐁' 세번째 시리즈

유진그룹은 미디어부문 자회사 유진플러스가 어린이 인기뮤지컬 핑크퐁의 세 번째 시리즈인 '핑크퐁랜드-황금별을 찾아라'를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단순하고 귀여운 가사와 귀에 착착 감기는 노래로 유튜브 누적 조회수 70억뷰를 기록할 만큼 국민 키즈 콘텐츠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핑크퐁은 지난 해 처음 뮤지컬로 무대에 올랐다.

'핑크퐁랜드-황금별을 찾아라'는 핑크퐁 뮤지컬의 세 번째 시리즈다. '핑크퐁과 상어가족'과 '핑크퐁과 상어가족의 겨울 나라'로 매진 열풍을 일으킨 핑크퐁 뮤지컬은 어린이 관객들의 빛발친 요청에 의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김승호 기자 bada@



P2P금융, 뭉쳐야 산다



기저수첩
채신화
(파이낸스&마켓부)

기자가 P2P(Peer to peer·개인간)금융업권에 출입을 시작한 건 2016년 초. 당시만 해도 'P2P'라 하면 다운로드 사이트 정도를 떠올리는 게 대다수였다. 그러나 2년 이 흐른 지금은 20대 친구들부터 50대 부모님뿐 세대까지 P2P 투자에 쉽게 접근하고 있다. 출입 기자로서 이제 막 날개를 펴는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국내 P2P금융업체들은 한국P2P금융협회를 구성해 금융 당국 등에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하고, 내규를 제정하고 주기적으로 공시를 하며 하나의 업권을 만들어 나갔다. 새로운 업권으로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법제화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로 당위성을 주장하며 힘을 보태왔다. 그러다 최근 P2P금융 업계가 반으로 쪼개졌다. 부동산대출 업체와 신용대출 업체와의 입장차가 심해지면서 협회에서 회원사들의 탈퇴가 줄줄이 이어진 것. 렌딩·팝펀딩·8퍼센트는 탈퇴한 후 새 P2P 협회를 만들었다.

업계에 따르면 올 초 금융당국의 'P2P 가이드라인' 투자제한 한도(개인 연간 1000만원→2000만원) 등이 업체들이 바라는 만큼 반영되지 못해 회원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불만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적한 '부실률 산정 방식'에서 고조됐다.

P2P금융협회는 분모를 누적대출잔액으로 사용해 회원사들의 부실률을 홈페이지에 매달 공시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의 시정을 요구하자, 투자금액 단위 자체가 커 수익률·부실률의 유용성이 높은 부동산 전문 P2P사의 반발이 이어졌다. 결

국 부동산대출 업체와 신용대출 업체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신용대출 업체인 렌딩, 팝펀딩, 8퍼센트가 기존 협회를 떠나게 된 것이다.

P2P업계가 본격적으로 시장 모습을 드러낸 후 업계 사이에서 '이원화'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우려가 높다. 특히 탈퇴 업체 중 팝펀딩은 신현욱 대표가 P2P금융협회장을 맡았던 만큼 당장 협회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법제화에도 또 다른 걸림돌이 생긴 셈이다. 그동안 업계에선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역할별을 막고 하나의 업권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규제를 받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 뚝뚝 뚫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왔는데도 번번히 무산됐다. 이 마당에 업계 내부적으로 이원화가 되니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csh9101@metroseoul.co.kr

인사

◆코트라 ◇ 임원 △ 중소기업본부장 선성기 △ 혁신성장본부장 김두영 △ 경제통상협력본부장 겸 무역기반본부장 윤원석 ◇ 간부 △ 기획조정실장 김태호 △ 운영지원실장 이성수 △ 인재경영실장 겸 인사팀장 나창업 △ 중소기업실장 이인호 △ 중견기업실장 박종근 △ 글로벌지원실장 정혁 △ 주력산업실장 김종준 △ 서비스산업실장 김상목 △ ICT·성장산업실장 소영술 △ 경제협력실장 김승욱 △ 통상협력실장 김선화 △ 개발협력실장 김형욱 △ 해외시장정보실장 송유환 △ 디지털혁신실장 김현태 △ 투자진출실장 김두희 △ 사회

metr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396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062호

적기치실장 안영주 △ 기획혁신팀장 박용민 △ 수출전략팀장 손병일 △ 수출바우처팀장 장종식 △ 유망기업팀장 강영진 △ 강소중견기업팀장 김준기 △ 해외취업팀장 이정훈 △ 스타트업지원팀장 조일규 △ 고객서비스실장 안재용 △ 기간제조직팀장 이종윤 △ 소재부품팀장 구본경 △ 지식서비스팀장 한정희 △ 의료서비스팀장 김지업 △ 경제협력총괄팀장 이상식 △ 신남방팀장 권오형 △ 신북방팀장 윤정혁 △ 프로젝트·공공조달팀장 허진학 △ 통상지원팀장 양은영 △ 시장조사팀장 동욱 △ 빅데이터팀장 김문영 △ 무역정보팀장 전우형 △ 정보시스템팀장 안성준 △ 정보보안팀장 홍창석 △ 외투기업채용지원팀장 허진원 △ 신산업유치팀장 하승범 △ 해외투자팀장 임재익 △ M&A팀장 박병국 △ 외투기업고충처리실장 강신학 △ 수출계약실장 김성환 ◇ 승진 (1직급(처장)) △ 홍보실장 정영화 △ 수출전략팀장 손병일 △ 해외취업팀장 이정훈 △ 빅데이터팀장 김문영 △ 해외전시팀장 이길범 △ 신산업유치팀장 하승범 △ 해외투자팀장 임재익 △ 실리콘밸리무역관장 이지형 △ 타이베이무역관장 박한진 (2직급(부장)) △ 기획조정실 임태형 △ 기획조정실 강은호 △ 운영지원실 최성우 △ 중소기업실 이든기 △ 주력산업실 김도형 △ 주력산업실 김필성 △ 소비재·전자상거래실 김준한 △ 경제협력실 이상훈 △ 투자유치실 김세진 △ 베이징무역관 김운태 △ 텐진무역관

장 박종표 △ 아산시무역관장 이정상 △ 시카고무역관 안유석 △ 마푸무역관장 고일훈 △ 수라바야무역관장 김현아 △ 해외무역관장 전보 및 파견(2018년 8월 1일 부) △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 겸 하노이무역관장 김기준 △ 중동지역본부장 겸 두바이무역관장 이관석 △ 중국지역본부장 겸 베이징무역관장 박한진 △ 로스앤젤레스무역관장 정영애 △ 싱가포르무역관장 김병권 △ 스톡홀름무역관장 최병훈 △ 홍콩무역관장 박철호 △ 광저우무역관장 황재원 △ 암만무역관장 이수정 △ 올란바토르무역관장 정원준 △ 브라티슬라바무역관장 홍상영 △ 타이베이무역관장 박철 △ 도하무역관장 김락근 △ 키예프무역관장 채승환 △ 선양무역관장 정영수 △ 실리콘밸리무역관 해외IT지원센터운영팀장 이영기 △ 창사무역관장 김중복 △ 베이징무역관 해외IT지원센터운영팀장 김운태 △ 텔아비브무역관장 김도형 △ 사면무역관장 정성화 △ 도쿄무역관 해외IT지원센터운영팀장 이병욱 △ 바그다드무역관장 채경호 △ 산토도밍고무역관장 최수영

◆농협생명 △ CPC총괄부사장 권용범
◆한국남부발전 △ 기획관리본부장 김병철
◆한국감정원 △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 상임이사 한숙렬 △ 경영지원실장 조주현 △ 서울강남지사장 정상규
◆딜로이트안진·딜로이트컨설팅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 부대표 승진 △ 세무자문 권지원 △ 세무자문 김선영 △ 세무자문 백상훈 △ 재무자문 오성훈 △ 재무자문 이형 ◇ 전무 승진 △ 회계감사 김동원 △ 회계감사 신병오 △ 회계감사 유안희 △ 회계감사 장수재 △ 세무자문 한민수 △ 재무자문 김재환 △ 재무자문 이종우 △ 리스크자문 송정선 △ 상무 승진 △ 회계감사 김영재 △ 회계감사 신창욱 △ 회계감사 안종민 △ 회계감사 이찬형 △ 회계감사 하성호 △ 세무자문 김영필 △ 세무자문 서민수 △ 세무자문 오중화 △ 세무자문 우승수 △ 세무자문 임호빈 △ 세무자문 조충환 △ 세무자문 최승웅 △ 재무자문 권용원 △ 재무자문 송준길 △ 재무자문 정태원 △ 재무자문 하상관 △ 리스크자문 이재호 △ 리스크자문 조민연 △ 고객전략 김석기 △ 상무보 승진 △ 회계감사 이정근 △ 재무자문 유재원 △ 리스크자문 정관훈 (딜로이트컨설팅) ◇ 전무 승진 △ 최광 △ 최동건 △ 현종도 ◇

◆시사저널이코노미 △ 산업부장 정기수 △ 정책 사회부장 이승욱 △ 금융투자부장 정준화 △ IT전략팀장 송수영

설지원팀장)·김영설(대전증권 제주지점장)·김영록(구례경찰서 근무) 씨 부친상 = 31일 오전 6시, 전남 광양장례식장 특실, 발인 6월 2일 오전 9시, 061-761-5500

▲ 구영순 씨 별세, 홍성태(현대HDS(주) 자문역) 씨 장모상 = 30일,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6월 1일 오전 4시 30분. 02-857-0444

▲ 한갑동씨 별세, 이택순(전 경찰청장)씨 모친상 = 31일 오전 6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6월 2일. 02-3010-2000

▲ 이정균(전 서울대 의대 신경정신과장)씨 별세, 이영진(의사)·정진(H&Q코리아 공동대표)·규진(서울고법 부장판사)씨 부친상 = 30일 오후 1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6월1일 낮 12시. 02-2072-2091

▲ 장웅진(전 국정원 일본실장)씨 별세, 장혜선씨 부친상, 이정기(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중소형 공모팀장)씨 장인상 = 31일 오전 5시, 서울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일. 02-2258-5940

▲ 박진영씨 별세, 박현민(미래이비인후과 원장)·박현주(중구보건소 의사)·박현구(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씨 부친상, 임상혁(전 노동환건강연구소 소장)씨 장인상, 31일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6월 2일. 02-3410-3151

부음

▲ 김광부 씨 별세, 김영현(광주광역시교육청 시